

# 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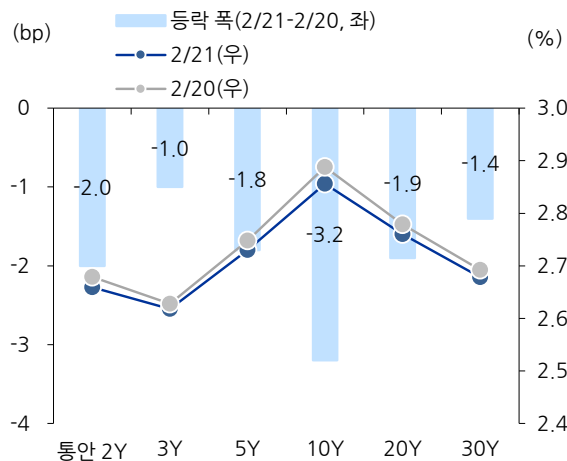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\_02)368-6138\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\_02)368-6177\_dbwogur170@eugenefn.com

## 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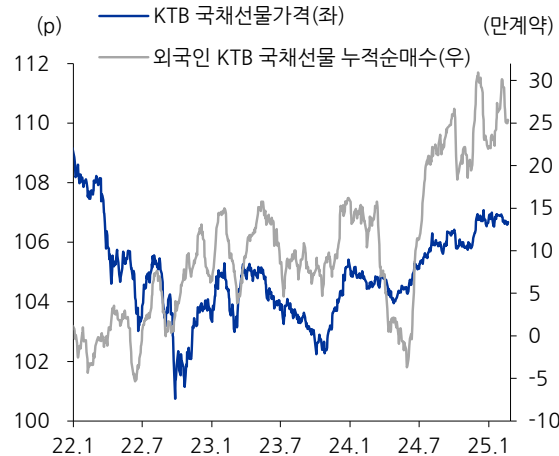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/21일  | 1D   | 1W    | YTD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국내<br>채권 | 한국 국고채 3년물       | 2.618% | -1.0 | 0.7   | 2.2   |
|          | 한국 국고채 10년물      | 2.856% | -3.2 | 1.0   | 0.1   |
|          | 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 | 23.8   | 26.0 | 23.5  | 25.9  |
|          | 3년 국채 선물(KTB)    | 106.68 | 5.0  | -4.0  | 3.0   |
|          | 10년 국채선물(LKTB)   | 118.26 | 28.0 | -10.0 | 134.0 |
| 해외<br>채권 | 미국채 2년물          | 4.201% | -6.7 | -10.6 | -3.9  |
|          | 미국채 10년물         | 4.433% | -7.2 | -9.7  | -15.2 |
|          | 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 | 23.2   | 23.7 | 22.3  | 34.6  |
|          | 독일국채 10년물        | 2.471% | -6.4 | 4.2   | 10.6  |
|          | 호주국채 10년물        | 4.517% | -1.1 | 9.8   | 14.9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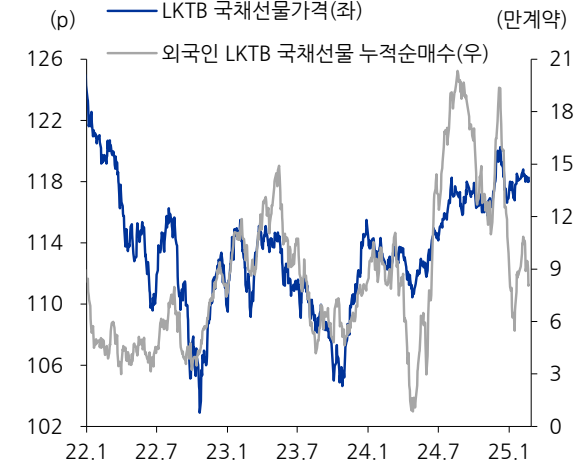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전일 미국채 흐름 연동되며 강보합세 출발. 미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예상을 웃돈 가운데 장기물 비중 확대 시점이 가깝지 않다는 베센트 발언 소화
- 금통위 앞둔 경계는 장 중 지속. 다만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 하락하고, 외국인인 10년 국채선물 중심 순매수하며 강세 견인
- 야당측 추경 관련 발언은 뚜렷한 계획까지는 없어 시장 영향 제한. 여야 및 정부, 추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으며 세부 내역은 실무 협의 통해 정할 예정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S&P 글로벌 서비스업 PMI, 25개월만에 기준선을 밑돌며 하락. 미시간대 소비자심리 확정치는 예비치 대비 하향조정되며 23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.
- 지표 실망감 확대된 가운데 오후 장 들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됐다는 보도로 안전 선호심리 확산. 미 10년 금리는 순간 4.4% 초반대까지 후퇴
-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이 확정치는 예비치 대비 상향 조정되며 '95년 이후 최고치 경신. 다만 위험회피발 매수세가 더 큰 영향 발휘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하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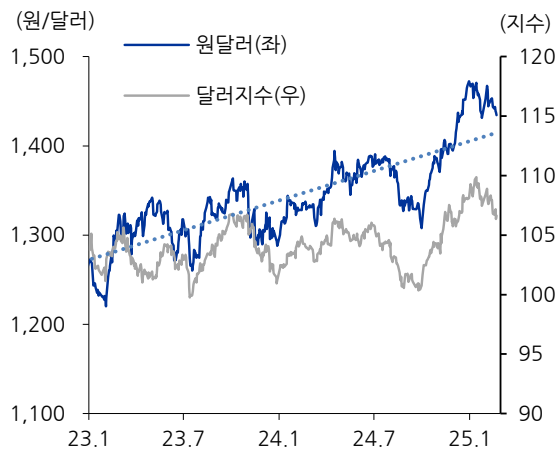


## 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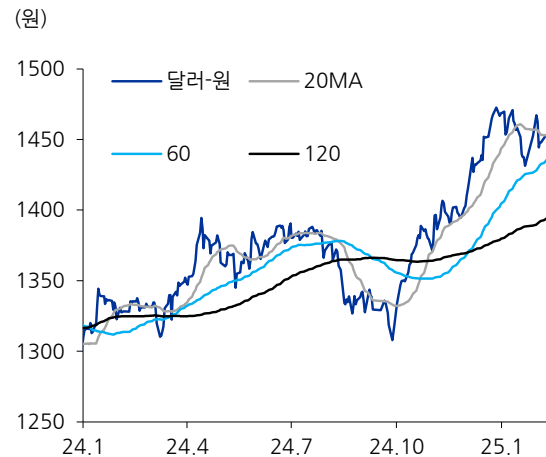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|              | 2/21일    | 1D    | 1W    | YTD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원/달러         | 1,434.30 | -0.3% | -0.6% | -2.6% |
| 달러지수         | 106.63   | 0.3%  | -0.1% | -1.7% |
| 달러/유로        | 1.046    | -0.4% | -0.3% | 1.0%  |
| 환율 위안/달러(역외) | 7.26     | 0.3%  | -0.0% | -1.1% |
| 엔/달러         | 149.14   | -0.3% | -2.1% | -5.1% |
| 달러/파운드       | 1.263    | -0.3% | 0.4%  | 0.9%  |
| 헤알/달러        | 5.73     | 0.5%  | 0.5%  | -7.3% |
| WTI 근월물(\$)  | 70.40    | -3.0% | -1.2% | -1.8% |
| 금 현물(\$)     | 2,934.83 | -0.1% | 1.7%  | 11.8% |
| 구리 3개월물(\$)  | 9,559.00 | -0.0% | 0.9%  | 9.0%  |

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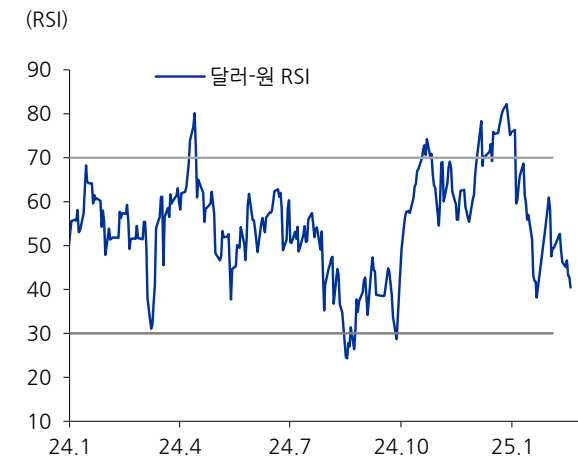
##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3.60원 하락한 1,434.3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3.70원 마감.
-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채 공급 확대를 시기상조라 평가하면서 달러는 미국채 금리와 동반 하락. 달러-원은 -4.60원 하락 출발.
- 무역 분쟁 우려 경감 속 글로벌 달러 약세에 연동되며 하락권에서 등락. 점심 무렵 1,431원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달러-엔이 반등하는 등 추가 하락은 제한.
- 장중 우에다 BOJ 총재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국채매입 규모 축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.

##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 지표 부진 속 위험 회피 심리에 상승.
- 2월 S&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49.7로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 진입. 제조업 PMI는 51.6으로 상승했으나 관세 부과를 앞둔 선제적 생산 및 주문 확대 영향. 전반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강하게 피력.
-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64.7로 급락. 장단기 기대인플레이가 각각 4.3%, 3.5%로 급등. 여기에 주택판매마저 부진하는 등 전방위 지표 부진으로 위험 회피 심리 확산.
- 한편 전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는 예상대로 기민/기사 연합이 다수당 지위를 획득, 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유로화는 반등.
- 금주 달러-원 환율은 1,425 ~ 1,445원 범위에서 등락 예상. 주중 금통위 예정.